

지식정보사회 새 지평 열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학습을 통해 문화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학습된 문화를 기록매체를 통해 후세에 전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는 활자와 인쇄술의 발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인쇄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만들어냄으로써 인쇄종주국이라는 영예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종이를 근간으로 하는 인쇄문화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론과 함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 선조들의 영예를 지키고 21세기 지식정보산업의 핵심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발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바로 읽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인쇄인들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쇄종합 잡지인 '프린팅코리아'를 창간한 것은 바로 이같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인쇄종주국의 영예를 계승하고 지식정보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최신 정보와 기술 등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종합인쇄매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론을 응집하고 이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가 우리 업계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지 편집진은 뉴스나 행사홍보 보다는 각종 현안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기획에서 디자인-제판-인쇄-후가공 등 인쇄의 모든 공정과 특수인쇄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린팅코리아 한 권이면 인쇄과 학생이나 인쇄인, 인쇄관련인 모두 '인쇄'를 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범 업계 및 단체를 대변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며 관련업계와의 유대강화를 통해 공동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도 앞장 설 것입니다. 이러한 인쇄종합잡지를 만들기 위해 관련 매체중에서는 유일하게 고급 스캐너를 비롯한 완벽한 편집시스템을 갖추고 취재, 편집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국제화에 부응하고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대내 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호도 영문표기로 정하였으며 컬러화 추세에 따라 올 컬러로 제작합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사학위 이상의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 여덟 분을 객원기자로 위촉하여 전문성 있는 기사를 매호마다 게재하고 해외유수 인쇄매체와 기사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최신의 인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가 스스로 찾는 고급잡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프린팅코리아 편집진은 절대로 옆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앞만 보지도 않겠습니다. 오로지 정론직필의 자세로 인쇄문화 발전과 인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도의 길만 걸겠습니다. 오늘 벽찬 마음으로 프린팅코리아 창간호를 선보입니다. 인쇄인 및 애독자 여러분의 채찍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프린팅코리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민 재 기
〈본지발행인〉